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18년 9월

휴먼러니게임

“13기”

참가안내

[경제] 초딩, 경제를 논하다

★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경제를 알면 돈이 왜 안 모이는지 보인다!

[문화]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 덕후와 힙스터 사이, 존중과 혐오 사이 대중문화 속 개인들

[철학]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유

★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 우선 알아야 할 자유, 그리고 평등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18년 9월 휴머니즘 13기] 강좌후원금

초등부 경제 10만원(5강), 중등부 문화 10만원(5강), 고등부 철학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추석연휴 때 1주의 휴강기간이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경제 초등	초딩, 경제를 논하다(5강) ★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경제를 알면 돈이 왜 안 모이는지 보인다!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9월 9일~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당신의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혹시 버스 기사나 아파트 경비원을 장래희망으로 가진 분 있나요? 싫다고요? 멋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경비업체 사장은 좋다고요? 아차, 깜빡했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높은 빌딩과 멋진 차, 그리고 여유롭게 정원에 앉아 화려한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을 향하지요. 당장 지금 내 짝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에 눈동자를 요리조리 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돈이면 채워지는 지금, 부자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을 욕하면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돈을 원하고 있는 지도 몰라요.

여기서 문제는 돈이란 것이 쉽게 벌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땅을 아무리 파도 10월 한 장 나오지 않는다는 어른들 말씀을 떠올려 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미 다 부자가 되어있게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 번 살펴보도록 해요. 과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

1강_ 블루마블 제왕이 되어봅시다! : 게임으로 연습하는 부자 되기!

몇 십 년째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 보드게임 블루마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모두의 마블까지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렸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게임 속에 현실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해야겠네요? 미리 힌트를 하나 줄까요? 반칙 아닌 반칙이 승리의 열쇠~. 무슨 말인지는 직접 게임을 하며 찾아보세요!

2강_ 이상한 경매 :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경매를 잘하기 위해선 딱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돈이 되는 물건을 찾아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획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매를 얼마나 잘하나 볼까요? 아이고, 그런데 이런. 상상도 못 할 물건(?)이 경매에 나왔네요!

3강_ 학 공장에서 생긴 일 : 사장과 사원의 끝장토론!

우리 함께 대박 공장을 차려볼까요? 직접 학 공장을 차려서 떼돈을 벌어보려고요! 그런데 공장만 차린다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계획을 함께 짜 보도록 해요. 그렇게 얻은 이익은 공장의 사장인 <나다>와 공평하게 나눌 거예요. 내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다니, 신나죠? 그런데 잠깐, 당신이 얼마를 받아야 공평하지요? +\#\$%@&??

4강_ 옷핀공장의 비밀 : 자본주의가 뭐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도대체 뭘까요? 잘 모르겠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어쩌면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른답니다. 두꺼운 책 대신 우리들 몸속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자본주의를 꺼내 보도록 해요.

5강_ 쓰고 또 써라! 그러면 행복해질지니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죽~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모두 산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결국 돈을 벌고 벌어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된 당신!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구름 위를 나는 듯 행복할 것 같다고요?■

문화 중등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5강)

★ 덕후와 힙스터 사이, 존중과 혐오 사이 대중문화 속 개인들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9월 9일~10월 14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호감도가 높지 않은 취향은 좀처럼 드러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고요!”라는 어떤 만화의 대사는 그런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편견 어린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개취(개인의 취향), 취존(취향 존중)”이라는 말이 타인을 대하는 덕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특이한 취향을 어필하거나 일반인들이 특이한 취향을 통해 얻게 된 능력을 과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적잖은 인기를 얻기도 했고요.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각자의 다른 점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취향과 취미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과 미디어의 선전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분명 어딘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개취에 대한 혐오가 넘쳐나기도 하니까요. 존중과 혐오, 상반되는 이 두 가지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

1강_ 덕후의 역습 : 현실을 뛰어넘은 존재의 매력

이제는 “덕후”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인정하는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한 마디로 지금은 ‘세상 밖으로 나온 덕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덕후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지도 아니,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숨어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덕후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세상 밖으로 나와 있나요?

2강_ 요리 보고 조리 보고 : 요리, 먹방 광풍 속 숨겨진 욕망을 찾아내다

여기도 요리, 저기도 요리.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요즘은 채널만 돌리면 무언가 요리하거나 먹는 프로그램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복잡한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놀라운 맛집을 찾아다니는 수준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레시피,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음식을 흡입하는 먹방이 대세입니다. 근사한 요리 한 접시와 먹방에 당신이 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3강_ 론리 플래닛 : 여행으로 자아를 찾을 수 있을까

과거의 여행은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유명한 유적지 혹은 자연환경을 구경하는 것이 최고였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여행에 더욱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기 있는 모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행을 통해 자아를 찾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4강_ 유튜브 ‘스타’의 의미 : 1인 미디어라는 착각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직접 방송을 하고, 또 방송을 듣고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알려진 유튜브, 아프리카 TV에만 가 봐도 정말 다양한 소재의 수많은 개인 방송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이 1인 미디어가 미디어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 단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네요. 1인 미디어가 그저 1인이 하는 여러 개의 미디어로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강_ 혐오와 존중, 두 얼굴의 개인 : 둘은 왜 다르지 않은가

개인의 취향을 바라보는 혐오와 존중이라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취향이 어떤 시선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존중이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모습을 한 쌍둥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철학 고등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유(5강)

★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 우선 알아야 할 자유, 그리고 평등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9월 9일~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일 것만 같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아닌데 몇 등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성적으로만 품질을 결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자유는 오히려 불량품의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더 자유롭게 살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유보다 먼저 학생으로서 책임(공부)을 다해라.’ 이런 충고들 속에 자유는 청소년의 인생에서 미뤄지고 지워집니다. 심지어 어떤 어른은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유라는 가치는 시험 성적의 가치보다 못한 것일까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 자유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일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를 향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진정 자유로 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유에 대해 질문을 할 자유도 없이 살아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

1강_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놀이 말고 공부해라”는 잔소리의 이면에도 아마 이런 논리가 숨어있을 법하지요. 혹시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자유가 그냥 자유지

무슨 책임이 따라? 책임이 따르면 그게 자유야?” 몰라서, 두려워서,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이 논리를 제대로 따져 묻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떼어보시다.

2강_ 죄와 벌 : 근대철학의 자유 논쟁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당신의 바람이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삶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섭리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면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가능하거나 할까요? 신의 권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의 이성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싶었던 근대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두려워 다시 족쇄를 채우기까지 그들은 어떤 고뇌를 했었던 걸까요?

3강_ 모두의 이기심을 자유롭게 하라 : 자유주의의 함정

사람들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간편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꽤 피곤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제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의 사람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대로 뒤도 괜 찮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제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허용해도 결국은 아무도 제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현명한 이기주의자들이 고안한 자유 지상주의의 세상은 당신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4강_ 천국에는 자유가 없다 :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자유는 평등을 방해하고 평등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도 자유와 평등은 반비례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철 지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은 흔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대립한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와 평등, 둘 중 하나의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5강_ 자유로부터의 도피 : 자유와 복종의 갈림길에서

평생 우리에게 간혀 살아서 문이 열려있어도 밖을 나서지 못하는 짐승처럼 복종에 길들어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대부분 인간은 어

떤 형태로든 지배를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송곳처럼 빠져나온 자유를 향한 열망은 이제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감옥이 더 자유롭다는 죄수의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은 정들었던 감옥을 떠나 낯설고 두려운 바깥세상으로 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교육공동체 나다 2018년 9월 휴머니즘 13기 소개 마침■